

17대 대통령선거 D-100

호남 민심 어디로?

믿고 마음 줄 후보 아직은...

분열·반목 범여에 반발 '李 쏠림' 현상 후보단일화 지켜본 뒤 막판 결정할 듯

제17대 대통령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범여권이 한나라당에 맞설 대선 주자를 선정하지 못함에 따라 대선 구도는 아직 안개 속이다. <관련기사 3·4·5면>
특히, 그동안의 대선에서 민주·개혁세력 집권의 원동력 역할을 했던 호남 민심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서는 좀처럼 속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바닥을 헤메고 있는 현재의 범여권 주자들의 지지율로는 집권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그동안 분열과 반목을 거듭한 범여권에 대한 실망감도 호남 민심 침묵의 주요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마음을 줄 만한 정당과, 믿어줄 만한 후보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호남 민심의 흐름은 '경제

라는 시대적 화두를 선점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로 쏠리는 극히 이례적인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지난달 21일 실시된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의 여론조사 결과, 이명박 후보는 호남지역에서 36.0%의 지지율을 기록, 수위를 지켰으며 이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14.7%), 손학규 후보(7.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코리아리서치센터 조사에서도 호남 유권자의 한나라당 선호도는 24.6%로 전례없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상당수 언론사의 조사에서 한나라당은 정당 지지도면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이나 민주당과 격차를 크게 좁혀 호남 민심의 분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범여권은 이에 대해 호남 민심이 '관망중'이며 정치적 선택의 시점이 오면 다시 결집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권 창출이 가능할만한 범여권 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 호남 표심이 분산되고 있으며 강력한 대선 후보인 한나라당 이 후보에게로 표 쏠림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범여권에서는 호남 표심은 추석 이후 실시되는 대통합 민주신당 광주·전남지역 경선에서 속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후 대통합 민주신당 후보, 민주당 후보, 장외 후보간의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호남 민심은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로 급속한 쏠림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개혁 세력의 분산인 호남 민심이 침묵하는 것은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다는 데다 분열과 반목을 거듭한 범여권의 잘못 때문이다"며 "그러나 대선 막판 호남 민심은 정권 창출이 가능한 범여권 후보에게로 급속하게 결집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을 계기로 호남 민심도 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우선 11월께 선 보일 범여권 통합 후보를 통한 정권 창출 가능성이 낮고 이명박 후보가 파격적인 호남 배려 정책을 내세울 경우, 호남 민심의 결집은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권 창출에 대한 의지가 과거에 비해 다소 엷어진 데다 희망보다는 분열과 반목을 거듭한 범여권 세력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두 자리 수 이상의 지지율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호남 민심은 대선이 다가올 수록 범여권 후보로의 결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과거처럼 민주세력 후보에게 90% 이상의 표가 결집되는 현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완공 앞둔 광주 다목적 체육관

제88회 광주전국체전(10월 8일 개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시 서구 염주동에 신축중인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연면적 5천612㎡·건설비 90억)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달 중순 완공 예정인 다목적 체육관은 전국체전 기간동안 핸드볼 경기장으로 사용되며, 대회 종료 후에는 각종 구기 및 투기종목 경기장과 선수훈련센터, 시민체육시설, 문화예술 활동 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 관련기사 22면 /N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문화수도' 지역여론 외면

조성위, 전당 내부주차장 등 문광부안대로 갈 듯

광주 문화중심도시 사업의 마스터 플랜인 '문화도시 종합계획안'이 광주시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기 보다는 '연내 공사 발주'라는 일정에 쫓긴 문광부의 의도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광주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위원장 조영택)는 지난 7일 광주시 동구 광산동 문화중심도시 홍보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문광부의 종합계획안 보고 청취 및 그동안 열린 공청회 등을 통해 논란이 됐던 쟁점에 대한 검토를 벌였다.
그러나 이날 조성위에 제출된 문광

부의 종합계획안은 그동안 광주시를 비롯, 광주지역 시민·문화·예술단체에서 제시했던 건의를 거의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화도시 사업 최고심의기관인 조성위원회도 문광부 안을 거의 원안대로 수용하는 선에서 심의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문광부는 ▲랜드마크 보강은 지상형 설계 대신 인접지에 상징물을 세우는 방법으로 대체 ▲대형 전문공연장 신설은 전당 내 시설 이용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설치의 별도 신설이 아닌 전당 내의 공간 확보라는 기존 의견을 고수했다. 또 문화전당 내부 주차장을 600대 규모로 유지한다는

계획도 그대로 밀고 나가기로 해 내부주차장을 100대 수준으로 줄이되 외곽주차장을 1천500대 규모로 늘려 문화전당의 주차장화를 막아달라는 지역사회의 요구도 거부했다.
조성위는 이날 회의에서 문광부 안과 광주시 안, 2차례에 걸친 공청회 등에서 도출한 지역 요구 사항 등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광부의 안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였다. 조성위는 결국 오는 17일 열릴 제4차 회의(최종 심의)에서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주요 쟁점에 대한 문광부 안의 원안 통과가 예상된다. /채희종기자 chae@

광주 땅값 상승률 수도권의 '5분의 1'

참여정부 4년간 27% 올라 전국 최하위

광주시의 지난 4년간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9일 발표한 '노무현 정부

4년간(2002년~2006년) 땅값 상승률'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2006년 땅값은 3.3㎡(1평) 당 평균 33만6천원으로 지난 2002년 26만4천원에 비해 27.3% 오른 데 그쳤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부산(24.0% 상승)에 이어 지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것이다. 전남의 3.3㎡ 당 평균 땅값은 1만8천900원으로 지난 2002년 1만3천300원 보다 42.1% 올랐으나 역시 전국 시·도 가운데 하위권인 12위에 그쳤다.
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지가는 광주에 비해 5배 내외의 상승률을 보였다.

지역	상승률
충남	145.8
경기	141.9
인천	90.8
대전	80.6
충북	77.1
경남	74.7
서울	71.5
강원	68.8
경북	58.5
울산	56.0
대구	43.2
전남	42.1
제주	40.1
전북	38.7
광주	27.3
부산	24.0

땅값 상승률 1위인 충남은 행정복합도시 유치 등으로 4년 사이 무려 145.8%나 뛰었다. 경기는 141.9% 올랐으며 인천 90.8%, 대전 80.6%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역별 지가 총액도 큰 격차를 보였다. 광주의 지가 총액은 34조원(2002년)에서 43조원(2006년)으로 9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경기는 4년 사이 무려 484조7천억원이나 폭등했으며, 서울도 412조5천억원 뛰었다.
지역간 땅값 총액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
광주와 경기를 비교할 때 ▲2002년에는 광주(34조원)가 경기(342조원)의 10% 수준이었으나 ▲2006년에는 광주(43조원)가 경기(827조원)의 5.2% 정도로 총액기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편 노무현 정권 4년간 전국 평균 땅값은 3.3㎡당 5만6천원에서 10만5천원으로 87.2% 올라 같은 기간 GDP(국내총생산) 상승률(23.9%)의 4배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유망직업 장학금 57만 원 지원
남부대학교
www.namju.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ac.kr

노대통령, 여수엑스포 지지 호소

APEC 정상회의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 9일 이틀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자리에서 2012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에 APEC

회원국가의 협조와 함께, 한국 정부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8일 오후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APEC 1차회의에 참석,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2012년 여수박

람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박람회 유지를 위한 1천만 달러의 시드머니(종자돈)를 출연, '여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9일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여수박람회 유지를 위한 페루의 협력을 요청했고, 가르시아 대통령은 지지의사를 밝혔다. /박치경기자 unipark@

주는 즐거움, 받는 기쁨
금강제화상품권
www.kwangju.com